

KIA타이거즈, 대체자원 ‘활약’… 반등 신호탄 쏘았다

10~12일 삼성·13~15일 NC전

주축 부상 속 젊은 타선 성장 부상 악재 많은 삼성과 설욕전 수비 구멍 NC에 타선 ‘관전’

KIA 타이거즈가 지난주 대체자원들의 활약으로 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연패와 주축 선수들의 잇단 부상으로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냈지만, 6월 들어 안정된 경기 운영과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어우러지며 중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채비를 마쳤다.

KIA는 지난주 두산, 한화와의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시즌 성적 31승 1무 30패(승률 0.508)를 기록, 지난 3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승률 5할을 돌파했다.

순위는 여전히 리그 7위지만, 4위 삼성(34승 1무 29패·승률 0.540)을 3경기 차로 바짝 쫓고 있으며, 1위 LG 트윈스와의 격차를 6경기 차로 좁히며 중위권 전열에 재합류했다.

KIA는 10일부터 홈구장인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리그 4위 삼성 라이온즈와 3연전을 치른다.

삼성에는 최근 7연승을 달리며 승률 0.532(34승 1무 29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르윈 디아즈(홈런 24개·타점 71개), 아리엘 후라도(8일 NC전 완봉승) 등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삼성도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흔들리고 있다. 김성윤(햄스트링), 데니 레예스(피로골절), 백정현(어깨 염증) 등 주요 전력이 이탈한 상태다.

이에 맞서 KIA는 삼성 상대 무실점 강투를 펼쳤던 김도현과 네일이 선발 카드로 출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시즌 삼성을 상대로 3경기 등판해

10.2이닝 4피안타(0피홈런) 무실점 3사구 9탈삼진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김도현이 이번 삼성전에서도 호투를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시즌 삼성과의 상대 전적에서 3승 5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KIA가 이번 3연전에선 우세 승수를 쌓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어 KIA는 13일부터 8위 NC 다이노스와 창원 원정 3연전을 소화한다. NC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부진하고 있지만, 팀 타율(0.273)과 홈런(11개) 부문에서는 1위를 기록 중이다.

특히 NC는 중견수 김성욱을 4라운드 지명권 1장과 현금 5000만원에 SSG로 트레이드하며 미래 투자 행

2025 KBO리그 순위						(9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LG	64	38	25	1	0.603	0.0
2	한화	64	37	27	0	0.578	1.5
3	롯데	65	34	28	3	0.548	3.5
4	삼성	64	34	29	1	0.540	4.0
5	KT	65	33	29	3	0.532	4.5
6	SSG	63	32	29	2	0.525	5.0
7	KIA	62	31	30	1	0.508	6.0
8	NC	60	26	31	3	0.456	9.0
9	두산	64	25	36	3	0.410	12.0
10	키움	67	20	46	1	0.303	19.5

보에 나선 상태지만, KIA와의 상대 전적은 2승 2패로 박빙이다.

KIA가 NC를 공략하려면 물오른 대체 자원들의 타선이 관건이다. 불안한 NC 마운드(팀 평균자책 5.69, 실점 65점, 피홈런 11개)를 공략하려면 윤도현·오선우 등 젊은 타선의 활약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1군으로 콜업돼 새로운 ‘도니살’(도현아 니킴시 살아야) 바람을 부는 등 윤도현은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타율 0.300(60타수 18안타), 4홈런, OPS(출루율+장타율) 0.904로 강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16타수 무안타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으나 8일 광주 한화전에서 3안타를 몰아치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오선우도 마찬가지다. 입단 7년 만에 1군 고정 자원으로 떠오른 오선우는 타율 0.308(146타수 45안타), 6홈런, OPS 0.855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6~7일 한화와의 2경기에서 무안타에 그쳤으나 8일 한화전에서 홈런을 생산하며 타격감을 회복하고 있다.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 공백 속 젊은 타자들의 성장세가 ‘6월 대약진’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주 6연전은 KIA의 순위 반등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현기 기자



KIA 최형우, 5월 월간 MVP

최다·최고령 수상 기록

KIA 타이거즈 외야수 최형우(41·사진)가 KBO 5월 최우수선수(MVP) 타이틀을 거머쥐며 리그 내 MVP 최다, 최고령 수상 기록을 모두 새로 썼다.

KBO는 9일 “최형우가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5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월간 MVP 수상은 최형우 개인 통산 6번째로 양현종(KIA), 박병호(삼성 라이온즈)와 나란히 하고 있던 월간 MVP 수상 5회 기록을 넘어 단독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우게 됐다.

기자단 투표 총 35표 중 19표(54.3%), 팬 투표 60만5631표 중 12만 1124표(20%)로 총점 37.14점을 받은 최형우는 기자단 투표 3표, 팬 투표 28만 7062표로 총점 27.99점을 기록한 한화 폰세를 제치고 5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

광주시청 고승환, 코리아오픈육상 남자 200m 금빛 질주

광주광역시청 육상팀 고승환(사진)이 2025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200m에서 금빛 질주를 펼치며 ‘한국 200m 최강자’의 위용을 입증했다.

고승환은 지난 8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200m 결선에서 20초54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어 같은 팀 소속 이재성이 20초58로 2위, 니시 유다이(일본)가 20초68로 3위를 차지했다.

고승환은 현재 한국 역대 3위 기록인 20초49를 보유하고 있는 현역 한국 200m

최형우는 지난 5월 동안 각종 타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총 35안타 6홈런 23타점에 타율 0.407, 장타율 0.721, 출루율(0.505)로 1위에 올랐고 OPS(출루율+장타율)도 1.226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안타는 공동 3위, 타점으로는 5위였다. 또 25경기에 출전해 10번의 멀티히트 게임을 기록했고 5월 13일부터 1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최형우는 최초의 40대 수상자가 되며 최고령 수상 기록도 새로 썼다. 만 41세인 최형우는 지난 2015년 5월 MVP를 수상한 이호준 NC 감독의 39세 나이를 뛰어 넘었다.

최형우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신한은행은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최형우의 모교인 전주고등학교에 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한다.

민현기 기자



m 간판이다. 이날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자신의 최고 기록과 한국 기록(20초40·박태건)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기록에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승환은 “기록 경신을 노렸지만 아쉽게 실패했다. 그러나 페이스는 괜찮았고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셔틀콕 여제’ 안세영, 인도네시아오픈 4년 만에 정상 탈환

왕즈이 상대 짜릿한 역전승 올해 국제대회 5번째 우승

광주체고 출신 ‘셔틀콕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왕즈이(중국)를 꺾고 인도네시아오픈 정상에 복귀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올해만 국제대회 5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지난 8일(한국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슈퍼1000 인도네시아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를 세트스코어 2-1(13-21 21-19 21-15)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이 인도네시아오픈 정상에 오른 건 2021년 대회 첫 우승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천위페이(중국·5위)에게 져 준우승했다.

안세영은 결승서 왕즈이를 상대로 1세트를 13-21로 내준 뒤 2세트에서도 1-7까지 밀리는 등 고전했지만, 중반부터 수비력을 앞세운 집중력으로 흐름을 바꿨다. 11-17로 뒤진 상황에서 연속 득점으로 21-19 승부를 뒤집은 뒤, 마지막 3세트에서는 21-15로 마무리하며 시상대 정상에 섰다.

이번 승리로 안세영은 올해 들어 왕즈이를 상대로 3연승을 이어갔다. 지난 3월 전영오픈 결승, 4월 수디르만컵 결승 단



안세영이 8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슈퍼1000 인도네시아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를 세트스코어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에 입맞추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식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상대 전적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안세영은 또 올 시즌 들어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총 다섯 차례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이달 초 싱가포르오픈 8강에서 천위페이(중국)에게 패해 첫 국제대회 패배를 기록했지만, 곧바로 정상에 복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동환 기자

‘제4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내일 개막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레거시를 계승하는 ‘제4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남부대학교 사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사)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수영연맹이 주관하며, 광주광역시 후원한다.

대회는 경영, 수구, 다이빙, 아티스틱스 위밍 등 4개 종목, 유년부부터 일반부가

지 6개 부문에 걸쳐 전국 15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루는 전국 규모의 수영 축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대거 출전해 신기록 수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수영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무대로 주목받는다.

최동환 기자